

광주 시내버스 친절 신고 달린다



市,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운전원 특별 친절 교육...준공영제 TF팀 발족

광주시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16일 "시민이 공감하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중심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비스 개선안 마련을 위해 운송업체 관계자와 서비스 평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난상토론(브레인 스토밍)을 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고 방안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대 시민 서비스의 첫 출발은 운전원이라는 인식에 따라 다음달 9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전원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상반기 불친절 민원신고가 접수된 운전원

146명을 대상으로 불편민원의 주요사태와 처분내용, 승객 응대와 안전운전요령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각 버스 회사별 성과 이윤(인센티브) 배분에도 운행 관련, 안전성, 서비스 만족도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이윤을 차등 부여해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업체의 자발적 참여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운전원의 근무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시는 최근 장등차고지 운전원 휴게실 편의시설과 화장실을 개보수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일곡, 첨단 등 차고지 7곳과 회차지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보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용차고지 노면 포장과

자동 세차시설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등 운전원들의 스트레스 주범인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는 모든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점퍼형 운전제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하는 등 근무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이 밖에도 준공영제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광주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준공영제 TF팀을 발족하는 한편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공공운수사업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의 정밀조사 분석을 통한 시내버스 운영 개선방안과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송승중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또는 시행중에 있다"면서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7개로 확대

광주·BC·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카드

광주에서 ARS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7개로 늘어난다. 광주시는 16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17일부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기존 광주카드 1개에서 BC, 신한, 현대, 삼성, KB국민, 롯데카드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ARS 납부서비스는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국민 없이 '1899-3888'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 미납 또는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도입해 11월 현재까지 879건 1억26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ARS납부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와 신청도 할 수 있다. ARS 납부서비스는 신용카드 외에 시금인 광주은행을 통해 계좌이체와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매일 0시10분 ~ 밤 11시30분)다. 정남인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ARS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소방공무원 가족

정신건강 예방교육

광주시는 17일 광주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 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정신건강진센터가 주관하는 이날 교육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가족들에게 전달돼 2차 외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예방교육에서는 조선대학교 박희석 교수(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부)가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대한 이해와 가족 기능 회복,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와 긍정적 대처법에 대해 강연한다. 임형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계기로 광주 소방관 가족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소방본부 재난대응 종합훈련

50여 대의 각종 장비가 동원돼 테러에 의한 화재, 폭발, 건물붕괴 상황에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화학물질 제독 등이 진행됐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광주 용산 지하철차량기지에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500여명의 소방 인력과 소방헬기, 소방차 등

광주국제교류센터 회원 30명

외국인 119 신고 통역 지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재화)는 지난 15일 광주국제교류센터 회원 30여명을 초청해 119종합상황실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119의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통역 서비스를 해주는 '119 3차 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119 3차 통화서비스'는 외국인이 119

에 신고했을 경우 신고를 받는 소방관과 외국인 자원봉사자 간 3차 통화를 통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서비스다. 현재 30여명의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 소방본부는 앞으로 8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 외국인 회원들은 이날 119 신고방법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교육도 함께 받았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주기적인 협력을 통해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술,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이옥현 북구 부구청장

'인생은 한잔 술이다' 출간

광주시 북구 이옥현(59) 부구청장이 최근 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재미있는 견해를 담은 한 데 묶은 책을 펴내 화제다. 그가 펴낸 책은 '인생은 한 잔 술이다'(307쪽). 이 책은 술의 어원과 역사, 소주·와인·전통주 등 종류별 정보와 450여 가지의 견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폭탄주 유래와 함께 삼강마주(빈 맥주병 위에 폭탄주를 놓고 마시), 성화병성주(맥주병을 거꾸로 세운 후 폭탄주를 놓고 마시) 등 60가지의 폭탄주 제조법도 담겨 있다. 또 세계 각국의 견해는 물론 '위스키 10년산은 왜 없을까' 등과 같은 주류



상식, 건강 음주 10계명, 전 세계 속취 해소술, 술과 영화의 만남 등 다양한 정보도 들어 있다. 정년을 앞둔 그가 책을 쓴 이유는 주변의 권유 때문. 그는 그간 술에 관한 자료와 견해 등을 묶은 '술 속에 진실이 있다'(2009)와 '견배사 사진'(2013) 등을 펴낸 적이 있다. 이옥현 광주 부구청장은 "많은 이들이 술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 술을 매개로 다양한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며 "술 자리에서 술의 유래나 역사, 재미있는 견해 등을 통해 좀 더 유쾌하게 술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AI 청정지역 광주시 "닭·오리 안심하고 드세요"

효령 노인타운서 닭고기 시식회

광주시가 AI 확산에 따른 닭·오리 사육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 시식회를 연다. 광주시는 16일 "오는 19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닭고기 소비 시식회를 겸한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시는

광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원철)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닭·오리고기 소비가 위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점심메뉴로 삼계탕을 제공하는 한편 닭과 오리고기의 안전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초청 노인을 위한 다양한 위문공연도 마련하기로 했다.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AI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중이며 축산농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심축 조기 신고요령과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I 발생지역인 전남·북에서 AI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매일 농가 소독을 실시해 AI 청정지역의 명예를 지켜내고 있다. 시는 또 전남·북 AI 발생농가와 역학적

으로 관련 있는 관내 농가에 대해서도 기금류 이동 제한(30일간)과 임상 예찰(정밀 검사)을 하고,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기금류만 이동을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중이다. 박철수 광주시 생령농업과장은 "국내 유통중인 닭과 오리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안전하다"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도 75℃에서 5분, 80℃에서 1분 내 사멸할 정도로 열에 약하므로 조리해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외 2종
비탈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외 2종

원적외선 히터외 11종

대형 제습기외 2종

이동식 에어컨외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외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시·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근로자, 직장인 전문직을 위한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